

제주 녹색당 '선거연합'을 말하다

이진아(그린씨), 부순정

녹색당

대안의 숲, 전환의 씨앗

1. 녹색당 강령 및 정책의제

2. 제주녹색당 당원들의 목소리

(2020 총선토론회, 아메이나고라보게 당원토론회 발취)

3. ‘선거연합’의 원칙은?

Chapter 1

녹색당 강령 녹색당 강령

한 눈에 보는 녹색당 강령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생태적 지혜

- 생태계 순환의 원리와 생태복원력이 위기
- 개발주의와 성장주의는 공동체와 생명, 자연을 파괴
- 공장식 축산업의 반생명적 환경에서 동물들이 사육

생태적 지혜에 바탕을 둔 전환의 비전이 필요

- 에너지 전환 사회
- 자연이 주는 에너지로 느낌과 여백의 사회
-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
- 환경오염 방지
- 야생동물을 보존하고 보호

사회 정의

- 
- 승자독식문화와 시장만능주의
 - 고질적 병폐인 부정부패
 - 노동 3권마저 실현되지 못하는 사회
 - 부분의 격차와 불균형이 사회정의를 위협
- 공정성 강화, 불평등 축소
 - 보편적 인권을 실현
 - 전 지구적인 나눔과 연대
 -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
 - 노동의 권리를 옹호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는 한계
- 기득권 정당 폐해
- 토호들이 장악한 지역정치
- 중앙집권 정치의 폐해

- 국민·주민소환, 국민·주민발의 등의 직접민주주의 강화
- 주민참여제도를 강화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전면 실시
-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
- 지역과 주민들에게 권한이양

비폭력 평화

- 지구 곳곳에 폭력이 가득
- 지배와 수탈이 강화
- 국가폭력
- 한반도야말로 가장 침예한 현장
- 폭력은 사회의 위계화와 가부장주의를 부추겼습니다

- 전쟁에 반대
- 평화와 통일
- 국가주의 거부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옹호
-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남성중심 문화에서 탈피
- 비폭력 대화와 소통

지속가능성

- 끝없는 경제성장과 개발을 추구
- 거대한 환경 위기
- 삶의 질과 생존을 위협
- 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해 경쟁과 개발을 최우선시하는 산업주의 체제

-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 핵에너지 사용 중단
-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
- 지역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는 체계

다양성 옹호

- 소수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배제
- 소수의견 억압되고 언론은 통제
- 획일성을 강요하는 교육, 제도, 문화가 만연
- 종의 다양성과 생물 다양성 위협
- 생태적·문화적·정치적·언어적·성적·종교적·영적 다양성을 존중
- 소수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옹호
- 소수 의견 보호, 다수의견 존중
- 여성과 남성의 평등
- 장애인·이주민·탈북주민·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
- 독립적인 언론과 방송을 보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우리는 <세계녹색당헌장>을 존중하고 실천하며, 지구적 이슈와 다른 나라의 시민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세계 녹색당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또한 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국가와 지역의 녹색당 및 녹색 시민운동과 늘 소통하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녹색당 운동이 지구 차원에서 확산되고 성장하도록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빈곤이나 정치적 억압을 겪고 있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닥친 환경적 위협, 정치적 탄압, 불평등과 분쟁에 맞서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라 믿고 연대할 것입니다.

Chapter 1

녹색당 정책의제

20대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녹색당의 주요 정책 1/2

1	탈핵에너지 전환과 기후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하고 2030년까지 탈핵하겠다. • 온실가스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를 보호하고 경제녹색화를 추진하겠다.
2	기본소득과 노동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를 튼튼히 하고, 생태적 전환을 위한 월 40만원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 • 주 35시간 노동시간을 법제화하여 일중독사회에서 탈출하고, 녹색일자리를 만들겠다.
3	식량주권과 안전한 먹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밥쌀 수입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내고, 농토를 농민에게 되돌리겠다.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먹거리 정책을 수립하고, GMO 방사능오염 먹거리를 몰아내겠다
4	차별 없는 평등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혼인평등을 제도화하겠다. •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고, 평등한 일터와 인권 돌봄이 실현되는 사회로 전환하겠다.
5	주거권 보장과 토지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 자동연장제’를 도입하겠다. 부동산투기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비거주용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겠다.
6	동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공장식 축산을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도록 전환하겠다. • 동물실험 금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물원을 구경거리가 아닌 동물보호시설로 전환하겠다.

20대 총선 공약을 중심으로 녹색당의 주요 정책 2/2

7	교육(배움)의 녹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담장 밖으로 공교육을 확장하고, 배움 주체인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 • 농사, 목공, 조리 등 삶의 기술까지도 배우는 교육과정의 녹색전환을 시작하겠다.
8	이주민과 장애인 권리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이주민을 합법화하고, 난민을 인정하는 실질적 포용정책을 마련하겠다. •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
9	탈토건 안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건예산 상한제 및 연도별 감축제를 도입하여 녹지축 회복과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 •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제정하여 환경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
10	한반도 비핵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파병제한법을 제정하고,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을 규제하겠다. •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및 보유와 이용에 반대하며, 남북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
11	민주주의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면적 비례대표제로 정치다양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추겠다. • 추천제 등 직접참여정치제도를 확대하고, 풀뿌리 지역자치를 강화하겠다.

녹색당의 강령과 주요 정책은

‘선거연합’ 과정에서
과연 실현되었나요?

제21대 총선 결과보고(총평)_녹색당

2020년 녹색당의 총선은 오랜 당내 갈등 누적, 선거 운영 자원/역량 부족 상태에서 준비되었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 건강한 조직 운영과 객관적 정세 진단이 선거의 기본 전제임을 재확인하였다.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후위기 가시화 등을 '위협' 요소가 아닌 '기회' 요소로 상정한 낙관적 정세 판단이 지속된 점도 정무적 실책으로 남는다.
-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한 정당 난립, 코로나19로 인한 친여 여론 형성 등 대외 환경변화는 소수정당에 악영향을 주는 구도였지만,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미흡했다.
- :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정책 시리즈는 기존 정책들과 연결해 흔들리지 않는 정책 기초를 보여줬다. 향후 구체적인 언어로서 사회전환 로드맵을 제시하는 기준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 대내외 환경 변화로 원내진입이 어려움에도, 목표 수정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했고, 결과적으로 3% 달성 전략을 수정하지 못하고 기본계획을 최소 실행하는 '최소 선거' 수준에 그쳤다. 불분명한 전략 속에서 대내적으로 후보 가산점 논란, 논의가 부족한 선거연합, 전 리더십들의 행보 논란, 후보자 과거사 논란과 사퇴 등 악재가 지속되었다.
- 선거대책본부 및 개별 사업 자원봉사자에 결합한 대다수 인원이 활동 당원이었으며, 어려운 당의 여건 속에서도 활약한 것을 넘어 선거연합 의사결정 동참, 실무 진행 등 경험을 축적한 당의 자산으로서 평가 받을 필요가 있다.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적 고민이 필요하다.

Chapter 2

제주녹색당 당원들의 목소리

(2020 총선토론회-아메이나 고라보게 당원토론회 발취)

총선토론회
(당원토론회)
2020년 3월 19일

아멤이나고라보게
(당원토론회)
1차: 4월 29일 오전 10시

아멤이나고라보게
(당원토론회)
2차: 4월 29일 오후 7시

아멤이나고라보게
(당원토론회)
3차: 4월 30일 오후 2시

제주녹색당 당원들의 목소리

“2020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은 ...

- 녹색당이 선거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선거연합에 올인하면서 당원들은 소외되고 당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황
-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녹색당에서 시기적 급박함에 밀려 직접 민주주의를 포기해도 되는가?
- 선거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에서 평당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지 않고 총 투표 들어감. 단지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충격적(윗 선에서 블랙정치 느낌)
- 8년 동안 느리게 정도를 지켰던 녹색당이 왜 이번 총선에 마음이 급했는가? 당원들과 같이 충분히 논의하며 구조를 공고히 해나가며 정당성을 강화시켰어야 했다.
-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의식이 필요하다고 해도 과정상의 올바름 부족
-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녹색당의 이해와 충분한 토론 불충분했다
- 꿈수인가 아닌가에 대한 토론 부재, 불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 투표에 참여함.
- 당원총투표에 동의할 수 없었고 불쾌.거부하고 싶었음
- 선거연합에 당원 70% 찬성을 보고 녹색당이 과연 진보정당인가? 녹색당 구성원이 지향하는 바가 무언인가 고민
-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선거연합 당원 총투표 보이콧했지만, 74%의 찬성표에 대한 고민 필요
- 당원 총 투표에서 원내진입의 부스터라고만 생각하고 찬성표. 현재 내 선택의 파급력을 생각하며 반성 중. 선거연합은 당의 뿌리와도 맞지 않았고 나와 같은 선택을 한 당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궁금

- 2019년부터 이어져온 당내 갈등 상황에서 조직의 신뢰, 대표자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선거연합을 논의하기 어려움
- 선대본이 당원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했어야 했다.
- 일련의 과정들을 결정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선거연합 총 투표에서 기간 연장은 될 때까지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선거연합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읽힘)
-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가 있다면 총 투표는 수단. 이번 당원 총 투표도 선대본의 선택이었기에 수단으로 활용됨
- 선거연합은 기존 정당의 정치 행태
- 민주당의 급박한 제안에 이런 결과 예측 가능
- 우리가 현재 싸우고 있는 현안들은 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 설사 선거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녹색당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
- 우리 소신을 끝까지 지켜야 지지를 얻을 수 있다.
- 녹색의 가치는 반자본주의 전선에 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적녹연합은 당연
- 정의당부터 더 왼쪽으로 있는 정당은 연합가능하나 보수우익, 신자유주의 정당인 민주당과는 연합불가
- 윤리 도덕의 문제

제주녹색당 당원들의 목소리

“2020 총선에서의 선거연합은 ...”

- 전당원투표 결과를 가지고 전선에 선 사람들이 욕을 먹더라도 위임받은 권한으로 앞으로 나갔어야
- 선거는 전투이기에 회의체를 벗어sk야 함
- 선거연합을 당원투표가 아닌 지도부가 밀어붙여야 했다. 설득은 수많은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거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앞에서 깃발 든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
- 74% 당원들이 찬성한 투표 결과를 옳고 그 과정에서 흔들리고 왔다갔다하며 당의 정체성에 혼란
- 선거연합 과정이 문제가 많았지만 반미통당에 동조해 찬성표
- 선거연합은 다시 오지 않을 기회. 녹색당을 위한 판이라고 생각. 이번 실수는 큰 지체. 유권자들에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놓쳤음.

- 누구와?
- 무엇을?
- 어떻게?

› 2차 토론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제주녹색당 당원들의 목소리

“ 제주의 선거연합은 ”

- 2020 총선에서 제2공항반대, 환경파괴 문제에 함께 할 수 있는 지역구 후보에게 지지선언 할 수 있다.
- 고병수 강은주 후보가 제2공항과 난개발 반대하고 있고 제주녹색당이 굶직한 사안들을 같이 하기로 한 단 위인 민중연대의 제안이다. 받아들여야 한다.
- 당내 토론을 위한 공식 채널 강화하고 이번 선거 연대는 제2공항 의제 연대이다.
- 서귀포에서는 도시우회도로 문제로 진보진영과 연대하는데 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이 당연히 공동 후보를 내야 하지 않냐는 의견 있음. 서귀포 지역 녹색당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듣기도 함.
- 상당 부분 동의가 되지만 현실적인 고민 해야. 제주 갑을 지역 당선 가능성은 없다. 2년 후 지역 대표 주자를 만들 때 성사되긴 어렵다. 연정에 목 매인 녹색당의 딱지를 가져갈 수 있다. 제한적 참여가 필요하다
- 선거연합 논의가 오갔던 문제로 지금 꼴이 우습게 됐다. 하지만 전국 문제를 제주 문제와 분리시켜야 한다.
- 진보성향 소수 정당과 가치 충돌은 없다. 당연히 해야 한다.
- 정의당 포함한 선거연합은 해야 한다. 진보정당 군소정당과의 선거연합은 해야 한다.
- 총회 때는 가치 충돌 안이 설득되었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모든 가치를 동의할 필요는 없고 몇 가지 공동의 주장으로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적록연합이 아니고는 선거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연대해야 하며 주장의 선명성 부각시키고 유연하게 대처하면 좋겠다.
- 길게 보면서 플랜을 짜고 움직이면 좋겠다, 너무 조급하게 이번 선거결정들이 이뤄졌다.

- 어떻게?

> 4차 토론회: 2022 지방선거, 제주에서 선거연합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선거연합’의 원칙은?

녹색당을 바라보는 다른시선

토론이 합의로 향하지 못하고 분열과 상호 비난으로 귀결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당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견해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곤란은 아니었을까?

이러한 곤란은 궁극적으로 녹색의 가치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으로 모호했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다.

더구나 녹색당 안에는 모호한 이념적 지향 아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교조적 원칙은 아니더라도 서로 다른 마음들이 만나 논의하고 토론하고 대결하면서 공통의 지향을 찾을 수 있는 방향설정이 필요했지만 녹색당은 그렇게 하기에는 이념적으로 느슨했다.

한 마디로 다양한 입장들 사이의 종합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을 녹색전환을 향한 투쟁으로 모아내는 대항해게모니를 구성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제주 녹색당의 원칙을 만들어보자.

생태적 지혜

사회정의

직접 참여 풀뿌리 민주주의

비폭력 평화

지속가능성

다양성 옹호

지구적 행동과 국제연대

0대 원칙

0대 정치활동

(제주현안을 중심으로)

참조: 서울녹색당 당원기본교육 안내자료